

#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WWL 202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

22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북한 당국의 강화된 사회 통제가 여전하였고, 이는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22년 초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드는 시점에 맞춰 외부와의 교역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당국도 5월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른 국경봉쇄 강화와 국내에서의 봉쇄조치(lockdown)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발병 인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내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였고 공식적인 발열 환자 수만 4백만 이상 발생하였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70여 명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보건 선진국에서도 기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으로서 그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실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이 지난 간 후, 북한은 8월 10일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그동안 정체되었던 경제 회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듯 북한은 22년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통제를 강도높게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통제 강화를 단순한 방역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닌, 외부 사조를 걸러내고 사상적 순수성과 정권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 강화 기초를 보여줍니다. 2020년 12월 열린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 법은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이나 책자 등의 유입, 소지 및 배포는 물론이고 남한풍의 행동이나 어투까지도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시 기존 북한 형법에 언급된 형량에 비해 1, 2단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정치범 수용소 수감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포함한 기독교 물품과 신앙 활동이 법에서 언급하는 주요 단속 물품과 행위에 포함되어 있어 기독교 역시 해당 법령의 주요 표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당 법의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후속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년 2월에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단속 연합지휘부'를 조직하였으며 21년 6월에는 이 조직을 '82연합지휘부'로 상설화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조선

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은 총 5장·45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청년들의 사회주의 생활 양식 확립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단속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통일미디어에서 22년 6-8월동안 북한 내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42명의 응답자가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게 더 위험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7명은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사례를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sup>1</sup> 조선 일보가 최근 입수한 '수도에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 나가자'는 제목의 북한이 교육, 선전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는 평양에서 야간 순찰 활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1천여 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백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up>2</sup>

북한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와 반동사상문화법 위반자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가해왔습니다. 해당 죄목으로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정치범 수용소나 그에 준하는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이 중 많은 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전문 보도매체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코로나 이후 급증하여 21년 기준 23만명을 넘어섰으나 그 중 상당수가 사망하여 22년에는 수감 인원이 20만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sup>3,4</sup>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봉쇄는 완화하고 있지만 사회 통제는 여전히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도 북한의 내부통제 강화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악화된 주민들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 대확산을 겪으면서 주민들을 힘겹게 만든 부족한 의약품 및 보건 인프라 문제는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sup>1</sup> 북 주민 50명 미디어실태 조사 공개..."외부정보 접하면 관리소행", RFA, 22.10.1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0182022094322.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0182022094322.html)>

<sup>2</sup> 평양서 한류 소탕전..."2중 3중 야간순찰, 한 구역서 1000명 자백", 조선닷컴, 22.12.26,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12/26/OWVUXBX4INFENOH7CI3V62OKAM/](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12/26/OWVUXBX4INFENOH7CI3V62OKAM/)>

<sup>3</sup>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총 23만2천명...작년 3월比 2만3천명 늘어", 데일리 NK, 21.07.27 <<https://www.dailynk.com/210727-5/>>

<sup>4</sup>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 지난해比 2만여 명 감소, 데일리 NK, 22.08.26, <<https://www.dailynk.com/20220826-5/>>

##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WWL 2023

지하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방역수칙과 반동사상문화법에 따른 여러 소탕작전과 단속으로 평소보다 더욱 가혹한 위협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내에서 성경책이나 예수 영화 등 기독교 미디어 시청 및 공유 등으로 인해 처형당한 사례들, 그리고 지하교회의 비밀 예배 모임이 발각되어 공격받은 비극적인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의 삼엄한 통제와 정보 흐름의 차단 상황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은 박해 사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WWL 2022 발표해서 북한의 박해 순위는 한 단계 낮아졌으나, 이번 WWL 2023 발표에서는 북한의 박해 순위가 조정되어서 다시금 세계 최악의 박해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위 변동이 박해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일시적으로 박해 사건 사례 수집의 어려움을 겪었을 뿐,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완화되거나 감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북한의 잔혹한 기독교 박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박해 종단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세계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절실하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다행히도 해외 선교 환경의 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뒤늦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었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예상보다 더욱 긴 코로나 통제 상황을 겪었지만, 23년을 맞는 현 시점에는 관련 정책 변화가 확인합니다. 북한은 이미 국가적인 코로나 확산을 겪었고 그로 인한 홍역을 치루기는 했지만 이제는 방역에 대한 우려를 덜고 대외 교역 재개와 경제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백지 시위' 등 국내 민심의 악화에 따라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상보다도 더욱 빠르게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장애물로 손꼽히던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코로나 이전수준의 회복은 아니지만 점차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통일과 북한선교 관련 활동을 했던 여러 기관과 교회가 사역을 중단하거나 철수하였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북한 선교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앞으로도 북한의 기독교 박해 정책 폐기 및 신앙의 자유 보장, 박해 피해 성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 중단, 숨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 및 신변 보장 등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할 것입니다.